손흥민, 유럽 통산 '100호골' 달성

손흥민(26·토트넘)이 마침내 유럽 무대 통산 100호골 을 달성했다.

손흥민은 6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~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(EPL) 15라운드 사 우스햄턴전에서 2-0으로 앞선 후반 10분 추가 골을 터 뜨렸다. 지난달 25일 첼시전에서 뒤늦게 리그 1호골을 신고한 손흥민은 리그 2호이자 올 시즌 4호골을 기록 했다. 이 골로 손흥민은 유럽무대 통산 100호골을 달성 했다. 한국 선수가 유럽 '빅 리그' 에서 100골을 돌파한 건 차범근 전 감독 이후 역대 두 번째다. 차 감독은 1978 년부터 1989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만 121골을 넣 었다.

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뛰던 2010년 10월 쾰른을 상대로 첫 골을 기록했다. 그동안 함부르 크에서 20골, 레버쿠젠에서 29골을 넣었다. 2015년 8월 잉글랜드 토트넘 이적 후 이날 현재 51골을 기록했다.

손흥민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"경기 뛸 때는 (100호골 이라는 것을) 잊어버리고 있었다. 경기 후 동료가 와서 알려줬다." 며 "내겐 너무 영광스러운 골이다. 영광스러 운 선물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축구 할 날이 더 많다. 앞 으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." 고 말했다.

손흥민의 쐐기골로 3-1로 승리한 토트넘은 리그 3위 (승점 33)로 올라섰다.

NHL 아이스링크 덮은 '곰인형'

지난 2일 펜실바니아 허쉬시에 있는 Giant Center 링크에서는 북미아이스하키(NHL) 경기를 벌이고 있던 홈팀 허쉬와 원정팀 빙엄턴 선수들이 1시간 여 동안 경기를 멈추고 링크로 던져진 곰인형을 수 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. 링크에 쌓인 곰 인형은 이날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이 던진 것이었다. 관 중들은 왜 경기 도중 곰 인형을 링크로 던졌을까?

사실 이맘때 NHL 경기에서 이런 진풍경을 목격 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. 이 곰 인형들 은 지역 자선단체에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하 는데, 벌써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북미 아이스하키 의 전통이다. 경기 도중 첫 골이 터지면 관중들은 일제히 곰 인형을 링크로 던진다.

이날도 첫 골이 터지자 환호하던 팬들이 들고 있 던 곰 인형을 아이스링크로 던졌다. 이날 링크에 산 더미처럼 쌓인 곰 인형의 숫자는 무려 34,798개로 역대 최다였다.이전 최다 기록은 서부 하키 리그의 캘거리 히치맨이 2016년에 세운 28,815마리였다.

빙판 위에 쌓인 곰 인형을 치우는 선수들은 짜증 은커녕 오히려 신이 났다. 인형들을 치우는 데만 1 시간 가까이 걸렸다. 이 인형들은 지역 내 복지 시 설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됐다.



매년 12월만 되면 미국과 캐나다 아이스하키에서 펼쳐지는 곰 인형 던지기 행사는 25년 전, 한 구단 이 팬들의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마케팅으로 시작 했는데, 지금은 하나의 문화가 됐다. 아이스하키는 물론 농구와 축구로 또 북미를 넘어 유럽과 호주에 서 따라 하기도 한다.

팬들은 원래 링크에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되지만 그 금기를 깨는 행위가 허용돼 즐거워하고, 또 뜻깊 은 기부까지 할 수 있다.

팀마다더 많은 곰인형을 모으기 위해 또 더 색다 른 방식의 이벤트를 준비하며 경쟁하기도 한다. 애 드먼턴 선수들은 아예 곰 장식이 있는 유니폼을 입 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.

우즈, 내년 프레지던츠컵 단장 … 선수로도?

타이거 우즈(43)가 2019년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에 미국 대표팀 단장을 맡았 다. 선수로도 필드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6일 '연합뉴스' 에 따르면 2019년 프레지던츠컵 이 열리는 호주를 방문 중인 우즈는 전날 "내가 자 력으로 출전 자격을 획득하면 선수로도 뛸 것"이 라며 "아직 대회는 1년이나 남았다." 고 말했다.

프레지던츠컵은 미국과 세계연합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이다. 다만 미국과 유럽의 대항전인 라이더 컵이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팀에서 유 럽은 제외된다.

격년제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에서 우즈는 2019 년 대회 미국 대표팀 단장으로 선임됐다. 단장은 선 수 기용 등의 권한을 가진다. 프레지던츠컵에서 미 국 대표팀 단장이 선수 역할을 겸한 것은 1994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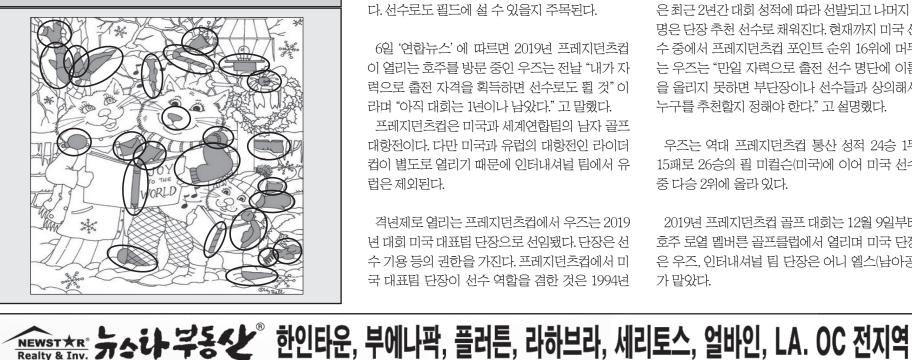
헤일 어윈이 유일한 사례다.

미국 대표팀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8명 은최근 2년간 대회 성적에 따라 선발되고 나머지 4 명은 단장 추천 선수로 채워진다. 현재까지 미국 선 수 중에서 프레지던츠컵 포인트 순위 16위에 머무 는 우즈는 "만일 자력으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 을 올리지 못하면 부단장이나 선수들과 상의해서 누구를 추천할지 정해야 한다." 고 설명했다.

우즈는 역대 프레지던츠컵 통산 성적 24승 1무 15패로 26승의 필 미컬슨(미국)에 이어 미국 선수 중 다승 2위에 올라 있다.

2019년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는 12월 9일부터 호주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열리며 미국 단장 은 우즈, 인터내셔널 팀 단장은 어니 엘스(남아공) 가 맡았다.

숨은그림찾기 정답





Cell 213 663 8544

erickang@newstarrealty.com

Realtor Associate at Beverly Hills Board of Realtor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

세리토스 콘도

건약 1,530 sf.

좋은동네

가

\$54만 HOTE

아

좋은동네

창

П

세리토스 콘도

\$65만

방3 +화4 건 약 1,850 sf.

Ξ

방3 +화2 건 약 1,500 sf, 대 약 5,300 sf, 좋은 동네

사

\$67만

고

파

세리토스 하우스

₹HOT \$72만 방4 +화3 건 약 2,100 sf. 대 약 4,100 sf. 좋은 동네

세리토스 하우스 \$84만

(HOT) 방4 +화3 건 약 2,080 sf. 대 약 6,400 sf. 좋은 동네

세

요

영어필요 가족 비지니스로 최고의 아이템 무한한 포텐셜

www.newstarrealty.com

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!